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도자료

보고 일시 (온라인) 2026. 5. 29(금) 14:00 이후
(지 면) 2026. 5. 30(토) 조간

담당 부서	미래혁신팀	김세성 팀장	(02-3460-9161)
홍보 담당	기획홍보팀	이승현 대리	(02-3460-9052)

“기술+자본, 가치의 한계를 넘다” 산기협-NH투자증권, 업무협약 및 2026년 ‘KOITA IR DEMODAY’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5월 29일(금)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NH투자증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망 기술기업 투자 연계를 위한 ‘IR DEMO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기협은 기술 기업의 성장 지원과 투자 연계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KOITA IR DEMODAY’를 운영하며 투자자와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해 왔다. 이번 NH투자증권과의 협약도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우수 기술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IR 발표 기회 제공 △투자자 네트워킹 △후속 미팅 지원 등 기술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IR DEMODAY’에서는 “기술+자본, 가치의 한계를 넘다(Beyond Tech, Above Value)”를 주제로 본격적인 IR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총 150개 신청기업 가운데 경쟁을 거쳐 선정된 8개 기업이 참여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사업 비전을 소개했다.

참여기업들은 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로봇, 수소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로, 현장에서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상담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KOITA IR DEMODAY는 다섯 번째 행사를 맞으며 기술기업과 전문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정례 IR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번 행사도 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투자시장에 알리고, 실질적인 투자 연계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기협은 앞으로도 데모데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투자자와의 만남을 확대하고, 후속 미팅과 기업 홍보 등 혁신 기술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IR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기업 소개
(주)에이코트	파우더 ALD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촉매·이차전지 양극재 등 다양한 나노 소재를 개발하고, 자체 설비를 통한 MEA(막전극접합체) 부품 제조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에너지 소부장 전문기업
에어메터(주)	실시간 바이오-에어로졸 탐지 기술을 통해 병원 내 2차 감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능형 감염 통제 솔루션' 기업
(주)유니원	전기화학 기반의 전해장치 제작, 공급 및 버려지는 전기분해 발생수소를 에너지화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주)이너센서	MEMS 설계 기술 기반의 방산 전투기 압력센서, 수소 안전 관리용 첨단 가스 센서 기술 국산화로 자주국방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첨단 반도체 센서 전문기업
(주)콧션	다양한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로봇 간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한 AI 로봇 앱 허브 '피오노이드(Pionoid)'를 구축하는 Physical AI 로봇 솔루션 기업
(주)필드아이	자기장 기반 영상 분석으로 배터리 내부 결함을 공간적으로 정밀 진단하는 기술 전문기업
하비카디오(주)	세계최초 PWR(Pulse Wave transit time Ratio)기반 비침습 심혈관질환 위험 검사기기와 심혈관계 종합 인공지능(AI)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창업기업
(주)헥스에이아이랩스	반도체 장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해, 계측 없이 실시간으로 박막 특성을 예측하는 도메인 지식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기업